

국토부는 철도공단을 통해 GTX-A 개통 기념식에 경기도지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, 경기도측이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.

< 보도 내용 (경향신문, 3.29) >

◆ GTX-A 개통 행사 대통령 따로, 경기도지사 따로...왜?

- 국토부는 개통기념식에 참여할 주요 내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지사에게 참석 요청을 하지 않음
- 국가철도공단은 19일 경기도에 도지사의 시승 참석을 요청했고, 경기도는 21일 참석을 통보했으나, 이후 26일 공단이 도지사는 시승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경기도는 시승식을 제외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철도공단에 최종 불참 통보

□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경기도에 시승식이 아닌 GTX-A 개통기념식 행사의 도지사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, 경기도는 3월 21일 도지사가 참석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후, 다시 3월 26일 도지사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.

- 29일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GTX 열차 시승식은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하였고,
-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주요 초청인사에게 시승식 참여를 요청하거나, 열차 시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준 바 없으며,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개통식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장이나 주요 인사 역시 시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담당자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
		담당자	주무관	송인규 (044-201-4024)
담당 부서	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	책임자	처 장	송혜춘 (042-607-3381)
		담당자	부 장	김창영 (042-607-3472)
		담당자	과 장	허정행 (042-607-3473)